

“등대는 바다를 건너서, 시간을 건너서 온다”



이탈리아 란테르나 등대

“등대는 인류 문명의 시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바다를 건너고 있는 장기 지속적인 그 무엇이다. 등대의 목적과 형태는 적어도 지난 2000년 넘게 변함없다. 그리고 변하지 않은 것이 또 하나 있으니, 그것은 등대가 주는 감동이다. 등대의 낭만성은 문학적 감흥으로서만이 아니라 일종의 ‘멘탈리티(mentality)’의 역사’로도 해석할 수 있다.”(본문 중에서)

“등대는 항구도시가 만들어낸 가장 뛰어난 세공품”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 단순한 외형이지만 생명을 구하는 빛을 지니고 있기에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의미다. 달리 말하면 등대에는 “유구한 해양문명의 DNA가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다.

제주대 석좌교수인 주강현 아시아퍼시픽해양문화연구원장이 등대를 토대로 인류 해양 문명사를 펼쳐낸 ‘등대의 세계사’를 펴냈다.

“역사과학으로서의 민속학”을 이 땅에 뿌리내리는 데 중심 역할을 했던 주 교수의 관심 분야는 바다였다.

저자는 “바다를 헤쳐온 인류 문명사는 곧바로 ‘역사의 문명사’이며 그 문명사적 원형질이 등대”라며 “등대에 바치는 ‘해양 문명의 아이콘’이라는 헌사는 온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류 문명의 속명도 같은 존재다. 수구(水球)라는 조건에서 밤하늘의 별과 같은 인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등대의 세계사

주강현 지음

류의 발명품이 진화, 발전해왔다”고 덧붙였다.

고대 계획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는 인류 최초의 등대 파로스가 있었다. 기원전 280~247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파로스 등대는 고대의 랜드마크였다. 저자는 파로스 등대가 세워지면서 알렉산드리아는 지중해 해상교역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특히 파로스섬은 알렉산드리아와 인근 해역에서 펼쳐지는 교역의 교차로가 됐다는 것이다.

로마제국 시대에 이르러서 등대는 분명한 역사 유산 실체로 존재하게 된다. 로마제국은 에스파냐 갈리시아와 영국 도버에 까지 등대 유산을 남겼다. 1~2세기에 주로 성장한 갈리시아는 해상무역의 주요 거점이 됐다.



파로스 등대부터 헤라클레스 등대·호미곶 등대까지

‘해양문명의 아이콘’ 통해 본 인류 문명사

아시아적 전통등대·항로표지 기술 발전 재평가해야

특히 로마시대의 대표적 등대인 헤라클레스 등대는 대서양 진출을 상징하는 건축물이다. 비록 1791년 재건축되긴 했지만 1900년 넘게 북대서양 해안을 굽어보며 ‘현역’으로 활동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경이롭다. 헤라클레스 등대에는 수많은 신화가 내재돼 있어 이곳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페니키아와 그리스, 로마의 해양 제국은 이후 제노바 베네치아 등 도시국가로 이어진다. 흑해까지 무역로를 넓혀가면서 도시들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지중해 패권 중심에 이탈리아 제노바가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란테르나 등대가 있었다.

12세기에 처음 등대가 건립됐을 때 모든 배는 세금을 내야 했다고 한다. 항로의 안전을 넘어 해적이나 외적의 침입을 경고하는 역할을 감당했다. 무엇보다 건너편 유리 공예로 유명한 도시 무라노에서 가져온 유리로 장식한 등대는 밤에는 불빛으로, 낮에는 깃발로 신호를 보냈다.

“해가지지 않는 나라” 영국은 근대 등대의 탄생에 불을 당겼다. 500년 영국 항

해사와 함께한 트리니티 하우스에서부터 대서양 진출의 길잡이가 됐던 포클랜드 등대, 근대 시작을 알리는 에디스톤 등대까지 대영제국의 이면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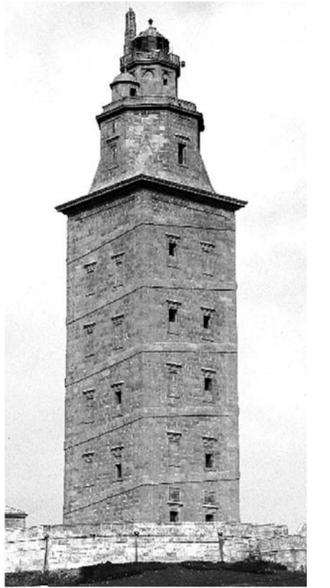
5세기 이래로 이민과 식민이 전개되면서 강대국들의 경쟁은 극에 달했다. 아메리카 몬타우크 등대는 당시의 역사를 상징한다. 디아스포라의 불빛은 미국만이 아니라 영연방 식민지 호주와 캐나다, 포르투갈 식민지인 인도 고아와 마카오에까지 미쳤다.

한편으로 저자는 등대를 바라보는 오리엔탈리즘 시각의 극복을 강조한다. 서양식 등대 관점을 벗어나 아시아적 전통 등대와 항로표지 기술을 재발견, 재평가하자는 의미다.

“중국의 산정에 세워진 불탑은 등담으로 기능했으며, 일본의 항포구나 사찰의 석등도 전통 등대였다. 제주도의 도대불 같은 전통 등대의 시도 역시 해양 문화적 자기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서해문집·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죽음의 해안’에 위치한 헤라클레스 등대.

약력

소설가인 박성천기자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지음, 전미연 옮김 ‘고양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1위(2016년 3월, 교보문고 10년간 소설 판매량 집계)의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 장편 ‘고양이’가 출간됐다. 전문 번역가 전미연 씨가 번역했으며 제목 그대로 주인공 고양이의 시각에서 인간의 문명을 바라보는 소설이다.



파리에서 살고 있는 암코양이 바스테트. 그녀는 ‘집사’가 틀어 놓은 TV 화면과 점점 찾아지는 골목길의 총성을 통해 그동안 당연시 여겼던 일상의 안락이 무너지고 있음을 직감한다. 이 무렵 바스테트는 옆집에 이사 온, 인간 세계에 대해 ‘너무 많이 아는’ 고양이 피타고라스와 친구가 된다.

작가는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운 타자의 시각을 빌어 인간 중심주의를 해체한다. 사실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차지해야 할 적절한 위치를 끊임없이 고민해온 베르베르의 작업은 첫 작품 ‘개미’에서부터 시작했다. 이번 ‘고양이’에서는 문제의식이 좀 더 성숙해지고 발전해왔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남성이 아닌 여성을 화자로 내세워 책 전체에서 남성 중심의 세계관과 ‘수컷의 어리석음’을 신랄하게 조롱한다는 점도 이색적이다. ‘주르날 드 프랑스’는 “고양이가 인간보다 똑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들은 컴퓨터에 접속하여 이 세계를 파괴하는 폭력에 대처할 것이다.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작가의 새로운 책”이라고 평했다.

번역자인 전미연 씨는 후기에서 “이 책은 길에서 고양이들을 돌보는 나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한 문장 한 문장 옮길 때마다 그동안 만났던 많은 고양이들을 떠올렸다. 이번 작업은 그래서 그 고양이들과 나의 만남과 소통의 기억이자 추억이다”라고 말한다.

〈열린책들·1만2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영수 지음 ‘대륙의 거상’

중국은 뱀속까지 장사꾼의 나라다. 우리에게 장사꾼으로 인식되는 한자 ‘상인(商人)은 중국 역사상 두 번째 왕조였던 ‘상나라 사람’이라는 뜻이다. 현재 중국이 강대국으로 떠오르면서 중국 경제를 움직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연 중국 상인의 뿌리는 어디에 있으며 또 어떤 모습일까?



중국인들은 새해 인사로 ‘신니엔과이러’나 ‘공시파차이’라고 즐겨 말한다. 전자는 ‘새해를 즐겁게 보내세요’라는 뜻이고 후자는 ‘돈 많이 버세요’라는 의미다. 후자의 인사말은 얼핏 전박한 인사처럼 들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말이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기’ 전문가인 김영수 한국사마천학회 이사장이 ‘대륙의 거상’을 발간했다. 자본주의 토대를 만든 중국 상인들을 분석한 책은 지나는 역사를 통해 미래 중국의 행보를 예측한다.

전 세계에 있는 중국 화교 상인은 대략 5000만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 화교 상인들이 자신의 원조로 만드는 인물이 왕해다. 갑골문에서 확인된 가장 오래된 인물이기도 한 왕해는 소를 이용한 우차를 제작해 소를 대량으로 길러냈다.

춘추전국시대 거상들은 팽창하는 자본을 바탕으로 상품 유통에서 생산에 이르는 상업 경제 전반에 진출했다. 소금과 철, 식량 등 기본적인 무역에서 시작해 고가의 사치품 매매, 화폐 주조, 고리대금업 등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이밖에 책에는 역대 중국 10대 거부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다. 유근, 화신, 송자문, 오병감, 등풍, 양기, 석송, 심만삼과 정경유착을 넘어 권력 자체가 된 상인 여불위 등에 관한 이야기가 수록돼 있다.

〈매일경제신문사·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민변 30년사 편찬위원회 지음 ‘민변 30년’

“다시 30년 전의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본다. 기대와 열의가 유달리 컸던 탓인지, 새로운 단체의 이름을 짓는 일은 수월하지 않았다. 칠판에 하나 둘씩 후보가 될 만한 이름이 올랐다. ‘민주변호사회’, ‘민주변호사협회’에서 시작된 논의는, 이름의 들머리를 ‘민주’로 할 것인지, ‘민주화’로 할 것인지로 옮겨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이 ‘민변 30년’을 펴냈다. 민변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증진을 위해 모인 변호사들이 1988년 5월 28일 창립한 단체다.

이후 민변은 창립 이전부터 수행해왔던 양심수, 시국사건의 변론이나 사법감시 활동을 넘어서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각종 공익소송, 입법 및 정책 제안으로 그 범위를 넓혀갔다. 현재 사법감시, 노동, 언론과 교육, 여성, 아동, 환경, 민생, 소수자, 평화와 통일, 국제통상, 과거사 청산 및 사이버 정보인권, 국제연대 분야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그동안 10년 단위로 백서를 작성해 조직의 변화와 주요 사업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놓았지만 다음 세대가 민변을 세운 선배들의 정신을 오롯이 잇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간의 활동을 정리한 30년사를 발간했다.

책은 총 4개의 장과 에필로그로 구성됐다. 1장 반독재 민주화의 길 위에서, 2장 시민 속 더 넓게 더 깊이, 3장 평화와 통일을 위한 큰 길에서, 4장 연대로 강해지는 인권 순으로 이뤄졌다. 각각의 장은 ‘공익소송’, ‘입법’, ‘사법’, ‘노동’, ‘민생’, ‘시민’, ‘평화’, ‘여성’, ‘국제사회’ 등을 담았다.

〈구리·1만8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삼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